

#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

-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을 중심으로 -

김지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전문위원

## I. 서론

DMZ 접경지역은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DMZ 접경지역의 관광은 안보관광에 제한되지 않고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DMZ 접경지역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지역 자원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과 문화적 가치가 공유되는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진정성은 '평화'라는 추상적 개념 대신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재생산되는 DMZ 접경지역의 공간적 의미를 지칭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특성과 방문객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질적 탐구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신문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초점집단을 선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DMZ를 경험하는 방식이 가장 다양한 지자체로서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철원군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인적자원을 활용한 공간 및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진정성 개념은 근대 이후 등장한 가치체계로서의 문화를 의미하며, 집단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 구성되는 속성을 가지고 진정성이 인정되는 대상에는 높은 위상과 권위가 부여된다. 세부적으로는 진정성 개념이 논의되는 맥락에 따라 차이점을 보인다. 근대 국가와 민족적 가치로서 진정성은 근대 이후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과정의 결과이다. 공간의 속성으로서 진정성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장소성, 지역 정체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공간에 대한 문화적 권력으로 정의된다. 관광객 경험으로서 논의되는 진정성은 관광을 유발하는 동기가자 관광의 대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광은 진정성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인간 활동으로, 관광학

에서는 방문객의 진정성 경험에 대해 다수의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내용은 진정성 경험이 의도적으로 조작된다는 '재현성'에 대한 연구들과 관광객들의 수행을 통해 재현된 의미, 가치보다 물질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인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비재현성'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된다.

## III.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구성되는 재현적 진정성과 관광객의 진정성 경험

관광을 통해 나타나는 재현적 진정성은 특정 관광 환경에서 진정한 경험이라고 의도되는 공간적 특성이다. 대상지의 지역 자원 활용 공간별 재현적 진정성은 Table 1과 같다.

한편, 관광객들은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되는 재현적

Table 1. 지역 자원 활용 공간별 재현적 진정성

	지역 자원	지역 자원 활용 공간	재현적 진정성
공동	땅굴 전망대	안보관광지	국가 안보의식 고취 특수한 군사적 상황으로 인한 유희
파주	임진각 군사시설 경의선 끊어진 철길	임진각 국민관광지	남북 평화 염원
	임진강	임진강 생태탐방로 황포돛배	통제된 임진강을 경험 자연 감상 평화의 의미 상상
	산림자원	울곡수목원	일상의 치유 울곡학의 정신 학습
철원	노동당사 일제강점기 폐허 철원평야	등록문화재로서 근대유적지 일대 소이산 둘레길	평화 의식 고취 다양한 관광 경험
	지역의 지리적 위치	평화문화광장	평화 담론의 학습 공간의 상징성 체험 지역의 장소성 이해
	철새 비무장지대 전쟁 폐허	DMZ 철새평화타운 DMZ 생태평화공원	생태-역사-주민의 공생 관계 경험
	김화군 역사	김화이야기관	정서적 감상
	산림자원	두루셀 숲속문화촌	체험 휴양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당 공간에서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을 해석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먼저,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을 통해 진정성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개별 공간에 진정성을 재현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현상들도 관찰되었다. 하지만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관광객들의 경험은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을 해석, 변형 혹은 거부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 관광객들은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 등과 관계를 맺는 '실천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수행'의 과정을 경험하기도 했다.

관광객들은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을 방문한 이후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한편, 여전히 접경지역이자 군사지역으로서의 특징이 지역의 진정성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진정성 경험을 의도하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을 방문하고, 실천과 수행을 통한 비재현적인 진정성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지역별로 고유한 특성으로서 진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관광객들이 경험하는 진정성은 개별 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DMZ와 그 접경지역 전체에 관한 내용도 발견되었다. DMZ 접경지역의 환경이 반드시 관광 자원으로서가 아니라도 지역의 역사 자원으로 진정성의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을 방문한 이후 평화와 통일의 담론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과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DMZ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논의되는 평화와 통일의 담론이 물리적 환경이나 사람들의 경험을 규정하는 틀이 되는 것은 진정성의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IV.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재구성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되고 있는 재현적 진정성은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지역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 자원에 대해 지역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관광객들은 재현적 진정성을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경험하고, 지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적 생각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재현적 진정성은 관광객들이 그것과 다른 관점으로 지역 자원을 해석하거나, 그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험의 구조를 거부함에 따라 다른 의미로 변형되어 전달되기도 했다. 한편,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실천과 수행을 통한 감각적이고 다양한 관광객들의 경험은

개별 지역과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은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의 경험, 그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관광객의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따라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재현적 진정성 경험과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모두 지역의 진정성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을 경험하기 어렵고,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도 불가능함에 따라 지역의 진정성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지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며,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을 경험하기 어렵지만,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에 따라 지역의 진정성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되는 유형이다.

#### V. 결론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은 DMZ 접경지역에 대한 선입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을 거부하는 경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 자원의 가치를 깨닫고 지역에 관한 생각의 긍정적인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관광이 안보관광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주목받지 못했던 DMZ 접경지역의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비재현적 경험을 활성화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DMZ 접경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하는 안보관광지의 관습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할 때 실제 현장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 느끼며 상상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여가활동이나 문화적 시도를 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의 공간은 비재현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것은 단지 대규모의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유롭고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둘째, 자연 자원의 활용은 새롭게 이식된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자원을 매개로 지역주민과 방문객 간의 소통과 유대감이 촉발될 수 있어야 한다. 관광편의를 위해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관광객 유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역사적 사실이나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입식으로 전달하기보다 사소하더라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과거로부터 이해와 상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합 문화적인 이벤트를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공간이 한 가지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의미가 변화, 확장, 수정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